“세계유산 통도사, ‘명승 · 사적’ 지정을”

한국문화자연유산학회 ‘통도사’ 주제 학술포럼

명승 · 식생 관련 연구 발표
통도사만 ‘명승 · 사적’ 아냐
산지승원 보존 위해 지정 필요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한국문화자연유산학회는 6월 13~14일 통도사 일원서 ‘한국의 산사, 통도사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의 가치와 계승’을 주제로 학술포럼을 개최했다. 사진=하성미 기자

지난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한국의 산지승원’의 7곳 산사 중에 한 곳인 영축총림 통도사를 명승이나 사적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문화자연유산학회(회장 이배용)는 6월 13~14일 통도사 일원서 ‘한국의 산사, 통도사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의 가치와 계승’을 주제로 학술포럼을 개최했다.

‘명승으로서의 한국의 산지 승원’을 발표한 김학범 한경대 명예교수는 세계유산으로 지정된 산지 승원들을 명승 혹은 사적 지정 여부를 분석했다.

본래 ‘명승 및 사적’은 국가지정문화재의 한 분야로 명산대찰을 보존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다. 1963년부터 2007년까지 운영되는 동안 10건이 지정됐으며, 이중 6건이 세계유산에 포함돼 있다.

하지만 법률적 문제가 됐고, 2008년부터 사적과 명승이 분리돼 운영됐다. 이에 따라 △속리산 법주사 일원 △가야산 해인사 일원 △지리산 화엄사 일원 △조계산 송광사 · 선암사 일원 △대둔산 대흥사 일원 등 5곳 산사는 사찰 구역을 사적으로, 이를 포함한 전 구역을 명승으로 나눠 지정했다. 경주 불국사는 사적으로 재분류됐다.

김학범 명예교수는 “영축총림 통도사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소중한 문화재임에도 불구하고 국가지정문화재인 명승과 사찰로 지정되지 못했다”고 지적하며 “영축산의 경승적 가치와 통도사의 문화재적 가치는 앞으로 조사 연구가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유네스코 무형유산정책과 한국불교 무형유산’을 주제로 발표한 임돈희 동국대 석좌교수는 유네스코 무형유산정책 현황을 분석하고 한국불교무형유산 발굴을 제언했다.

임돈희 석좌교수에 따르면 유네스코는 2003년 ‘무형문화유산 보호협약’을 제정해 세계 곳곳의 무형유산들을 보호하고 있다. 2016년에 이르러서는 ‘지속가능한 발전 목표’를 새로운 비전으로 내세웠다.

이에 대해 임돈희 석좌교수는 “유네스코가 무형유산의 지속가능한 발전 목표를 세운 것은 무형유산을 바로 보는 관점을 획기적으로 전환시키겠다는 의미”라며 “이는 전통문화를 보호한다는 관점에서 무형유산이 현재 생활에서 살아있는 유산으로서 기능과 역할을 강조한 패러다임”이라고 설명했다.

이 같이 변화된 유네스코의 비전에 따라 한국불교의 연등회와 발우공양을 재조명할 필요가 있다는 게 임돈희 석좌교수의 주장이다. 연등회는 유네스코가 지향하는 사회통합과 평등, 평화와 안전 회복 등에 초점을 맞출 수 있으며, 발우공양은 양질의 건강관리와 좋은 교육, 식량문제라는 유네스코의 목표에도 부합된다.

임돈희 석좌교수는 “유네스코의 새로운 화두인 무형유산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관련해 연등회와 발우공양은 어느 무형유산보다 발전 목표에 부합한다. 특히 연등회를 지속가능한 발전과 연계할 때 세계가 공감하고 즐기는 인류의 축제로 발돋움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佛 · 儒 회통, 신라 · 고려 지배층 정식 이념”

셈 베르메르스 교수, 반야연구원 국제학술대회서

불교와 유교의 회통 사상이 신라 후기부터 고려까지 지배층들의 정식적인 이념이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셈 베르메르스(Sem Vermeersch, 사진) 서울대 종교학과 교수는 6월 2일 (사)반야불교문화연구원(원장 지안)이 통도사 반야암에서 ‘융합과 회통, 동아시아 불교의 전통과 토착화’를 주제로 개최한 국제학술대회에서 이 같이 주장했다.

셈 베르메르스 교수는 ‘한국불교사에서 유불회통과 혼합’이라는 주제발표에서 신라 후기부터 고려시대까지의 문헌자료를 통해 당시 시대의 회통담론에 대해 분석했다.

셈 베르메르스 교수는 〈삼국사기〉에 수록된 최치원의 ‘난랑비서(鸞郎碑序)’에 쓰여진 ‘이는 삼교(三敎)를 포함하고 뭇 백성들과 접하여 교화한다’는 등의 구절에 주목했다.

그는 “최치원은 불교, 유교, 도교가 나름의 역할이 있지만, 신라에는 삼교를 통합하는 풍류도가 있다고 했다. 이는 삼교가 따로 움직이지만 신라에는 이를 통합하는 풍속이 있다는 의미”라며 “삼교를 통합하는 방식은 사실상 중국의 호법론을 인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최치원은 자신이 지은 진감선사비에서 여산 혜원(334~416)이 논(論)한 “여래가 주공, 공자와 드러낸 이치는 다르지만 돌아가는 바는 한 길”이라는 구절을 인용하고 있다.

최지원의 사상은 고려시대 정권의 사상적 바탕이 됐고, 회통사상도 그대로 이어졌다. 고려의 왕부터 관료까지 유교적 덕목의 양성이 불교에게 맡겨졌다. 특히 고려시대에는 효 사상이 불교를 통해 교양할 수 있다고 믿었다.

이에 대해 셈 베르메르스 교수는 고려 현종이 선왕의 명복을 빌기 위해 조성한 헌화사비를 예로 들었다. 현화사비 본문에 따르면 현종이 아버지의 무덤을 옮긴 후 사리가 기이하게 나타났고, 중국 황제가 현종의 효행에 감동해 대장경을 베풀었다고 전한다.

셈 베르메르스 교수는 “임금의 덕행이 주변 사람, 나아가 우주에게까지 응답을 일으킨다는 감응의 작동법”이라며 “현종의 충신 채충순이 집필한 현화사비 음기에는 더욱 명확하게 효를 불교와 유교의 근원으로 설명한다”고 설명했다.



회통사상, 사대부의 세계관
‘孝’ 수양할 교법으로 인정
고려 후기부터 佛 · 儒 분리

이어 “불교와 유교가 분리된 것은 고려 후기 성리학이 소개되면서부터”라며 “하지만 많은 지식인들이 불교의 부패를 비판하면서도 여전히 불교를 애착하며 효나 다른 덕목을 닦기 위해 우수한 교법이라고 믿었다”고 밝혔다.

셈 베르메르스 교수는 신라 후기부터 고려시대의 지배층을 관통하는 사상을 ‘유불회통’으로 봤다. 그는 “신라 후기에서 고려시대 까지의 유불회통(儒佛會通) 담론은 지배층의 정식이념”이라며 “고려 후기 ‘신흥’ 엘리트를 대표하는 이색도 불교를 깊이 존엄하고, 마음 닦는 법으로 유교보다 우세하다고 생각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회통사상은 적어도 일부 사대부에게는 지배적 세계관이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제9회 반야학술상 공모도

한편, (사)반야불교문화연구원은 제9회 반야학술상을 오는 7월15일까지 공모한다. 응모 대상은 최근 3년간 불교학 및 불교문화 관련 연구업적이 뛰어난 중견급 이상의 연구자이며, 수상자 1명에게는 1000만원의 연구지원금이 수여된다.

추천 및 응모방법은 (사)반야불교문화연구원 홈페이지(http://www.banyaresearch.org)를 참조하면 된다.

신성민 기자

韓 · 佛, 직지 소재 다큐 공동제작한다

11일 문화유산채널 · 제데옹 그룹 공동제작 협약 체결

한국과 프랑스가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인 〈불조직지심체요절(佛祖直指心體要節)〉를 소재로 한 다큐멘터리를 공동제작한다.

문화재청(청장 정재숙)은 “문화유산채널과 UHD 방송사 유맥스, 프랑스 제작사 제데옹 미디어그룹은 6월 11일 프랑스 파리에서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직지’를 소재로 한 다큐멘터리 공동제작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직지, 세상에 나오다(가제)’를 주제로 한 다큐멘터리는 ‘직지’를 발견하기까지의 과정과 이야기, 세계기록유산으로서의 가치 그리고 금속활자 인쇄술이 인류의 문명사에 끼친 영향 등을 소개한다. 또한 청주 흥덕사지(사적 제315호)와 금속활자장, 프랑스 국립도서관, 독일 구텐베르크 박물관 등 다양한 현장의 취재기가 담길 예정이다.

‘직지’ 다큐멘터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KCA)의 ‘2019년 방송프로그램 제작 지원 사업’의 ‘국제공동제작 부문’ 선정작이다. 지난 3월 한국문화재재단과 ㈜홈초이스, 프랑스 제데옹 미디어 그룹 등 3사가 연합으로 공모해 기획안, 기술평가(PT) 등을 거쳐 지난 4월 최종 선정됐다.

제작지원금 3억 원을 포함한 총 제작비는 5억 6,000만원으로, 총 2편의 다큐멘터리(50분)와 국내외 제작과정을 담은 영상(50분) 1편을 한국어, 영어, 불어 등 총 3가지 언어로 제작하게 된다. 프로그램은 오는 2020년에 한국(문화유산채널, UMAX)과 프랑스 TV(Arte 등)를 통해 동시 방영할 예정이다.

문화재청은 “이번 ‘직지’ 다큐멘터리 제작이 한국의 유산이자, 세계의 유산인 ’직지‘의 가치를 전 세계에 새롭게 조명하는 방송이 되기를 기대한다”면서 “향후 한국문화재재단과 함께 국민에게 친근한 문화유산 콘텐츠를 제작 · 보급해 문화유산의 가치를 널리 알리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성민 기자



문화유산채널과 UHD 방송사 유맥스, 프랑스 제작사 제데옹 미디어그룹은 6월 11일 프랑스 파리에서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직지’를 소재로 한 다큐멘터리 공동제작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불교학연구회 ‘승가교육’ 주제 워크숍

6월 21~22일 해인사서

불교학연구회(회장 임승택)는 6월 21~22일 해인총림 해인사 템플스테이 강당에서 여름 워크숍을 개최한다.

‘교육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한 회고와 전망’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워크숍은 승가대학 교육 프로그램들의 현황을 살피고 전망을 분석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워크숍에서는 해인사 승가대학 학감 보일 스님이 ‘해인사 승가대학 교육프로그램의 현재와 향후 과제’를, 고운사 화엄승가대학원 학감 혜진 스님이 ‘고운사 화엄승가대학원 승가교육 사례’를, 청암사 승가대학 혜범 스님이 ‘조계종 기본교육기관 교과과정 현황 및 발전 방향’을, 운문사 승가대학 은광 스님이 ‘운문사 승가대학 교육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한 회고와 전망’을 발표한다. 워크숍 참가 자격은 불교학연구회 회원 및 불교학자, 스님, 학생, 가족 등이다. 참가인원은 40명으로 선착순 마감한다.

불교학연구회는 “법보종찰 해인사에서 진행되는 이번 워크숍은 승가교육 프로그램의 현재와 미래에 관한 토론의 장이 될 것”이라며 “관심있는 회원, 불자들의 참여 바란다”고 밝혔다.

신성민 기자

